▲ 자선바자회(아름다운 토요일) 일일점원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미르 에이 투바이엡 CEO

"어려운 이웃에 희망의 노란 씨앗 뿌려요"

이동훈
S-Oil 홍보팀 과장

지난 12월23일 제주도의 한 콘도, 한시도 엄마 손을 놓지 않는 새침떼기 은비(4세), 동그란 얼굴의 귀염둥이 한솔(6세)이, 가수 비보다 더 잘 생긴 현우(15세), 사이 좋은 오누이 효준(10세)이와 효진(8세)이의 해맑은 웃음 소리에 크리스마스를 맞아 제주도를 찾은 화상어린이 가족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더없이 따듯하고 행복한 밤을 보냈다.

이번 희망나눔여행은 화마나 순간의 부주의로 인한 화상으로 힘겨운 수술과 치료 때문에 놀이터 보다는 병원생활이 더 많았던 그리고 남들과 다른 외모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서기 두려웠던 화상어린이 26명과 오랜 간병생활에 지친 보호자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에쓰-오일이 2박3일 일정으로 준비한 조그만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여행 기간 동안 화상어린이들은 말타기, 활쏘기, 감귤따기, 테디베어박물관 견학 등 모처럼의 바깥 나들이에 얼굴에서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다. 특히 아이들이 더 높은 꿈을 갖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에쓰-오일이 제공한 헬기를 타고 제주도의 하늘을 둘러본 것은 화상어린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

일회성 기부 탈피,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 실천

에쓰-오일은 이웃과 협력하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나눔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사회와 환경을 배려하는 것을 회사의 중요한 경영철학으로 정립하고, 우리 주변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 희망의 노란 씨앗을 뿌리고 키워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에쓰-오일 사회공헌활동의 중요한 원칙은 요청에 의한 수동적인 일회성 기부활동을 탈피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에쓰-오일은 2006년7월부터 소방방재청과 함께 '소방영웅 지킴이' 프로그램을 통해 힘든 근무여건도 마다하지 않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인 소방관들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2006년의 경우 총 6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사고 현장에서 순직하거나 장애를 얻어 퇴직한 소방관 자녀 100명의 양육비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화재진압 및 각종 구호활동 중 순직한 소방관 가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등 소방관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모범소방관들을 표창함으로써 소방관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소방영웅 지킴이' 프로그램 외에도 현악사중주단,

▲ 영웅소방관으로 선정된 8명의 소방관

▲ 에쓰-오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제주도를 찾은 화상어린이들

▲ KBS사랑의리퀘스트에 출현, 추가기부를 약속하고 있는 김동철부사장

아카펠라그룹 등과 함께 매월 전국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보호시설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낙도오지 등 우리 사회의 문화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음악회를 열고 각종 선물도 함께 전달하는 "에쓰-오일의 찾아가는 노란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불편한 거동으로 사회와 고립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성장 ·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싱가포르 국제마라톤대회 참가, 화상어린이 제주도 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양한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전개

에쓰-오일 사회공헌활동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지역사회와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 함께 성장 번영하는 것이다.

에쓰-오일은 2001년부터 매년 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산지역 농민들을 돕기 위해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쌀 중 정부수매분을 제외한 잔여추곡 7천~1만4천 가마(온산지역 전체생산량의 40~50%)를 현금으로 매입하여 지역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 에쓰-오일이 온산지역 농가로부터 매입한 쌀은 지난 6년간 총 3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매입한 쌀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모자/부자가정, 무료급식소,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여성시설 등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에쓰-오일은 농산물시장 개방확대 등 어려운 농업경영 여건 하에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농민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2002년부터 무공해 쌀 생산을 위한 오리농법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정부의 추곡수매제도 폐지로 2006년에는 오리농법 경작면적이 전년보다 77%나 늘어난 9만5천여 평으로 확대되었으며, 오리농법으로 경작된 쌀 전량을 고가의 친환경 무농약쌀 가격으로 현금 매입하여 무공해 쌀 생산이 온산지역 전 농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소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과수농가를 위한 '내 고향 배사주기' 캠페인, 대산지역 불우이웃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유 지원 사업, 초등학교 스쿨존 안전펜스 설치, 오영수 문학상, 아름다운 눈빛 미술제 등 다양한 지역사회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온산지역에서 생산된 벼의 40%를 에쓰-오일에서 수매

다양한 매칭그랜트 프로그램을 통해 기부문화 저변 확산에 앞장

에쓰-오일은 단순히 기업만의 사회공헌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하여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매칭그랜트 프로그램을 개발 · 실천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기부문화 저변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에쓰-오일은 2006년 9월부터 한국복지재단, KBS와 함께 대표적인 사회공헌 방송프로그램인 '사랑의 리퀘스트'에 ARS 모금액의 10%를 추가로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ARS 전화 한 통(1,000원)마다 에쓰-오일의 추가기부금 100원이 더해져 기부금이 1,100원으로 커져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06년 에쓰-오일은 약 1억원을 '사랑의 리퀘스트'에 추가로 기부했다.

또한 2005년부터 시행중인 "노란리본 캠페인"을 통해서는 고객들이 주유시 적립한 보너스포인트를 기부하면 동일한 금액의 회사 출연금을 더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8세가 되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2006년에는 보너스카드 회원들이 기부한 포인트에 회사출연금을 더해 약 2천5백만원이 숙소 마련, 시설운영비 등으로 지원되었다.

이외에도 에쓰-오일은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자선행사 및 아름다운 가게 차량 유류비 지원,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한 소외계층 아동 및 청소년 건강관리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펼쳐감으로써 사회공헌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는 그 동안 부서 직원 단위로 자체적으로 시행해 오던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된 '에쓰-오일 사회봉사단'을 출범시켰다. 총 750명으로 출범한 S-Oil 사회봉사단은 서울, 울산 등 6개 지역봉사단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지역봉사단은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게 된다. 회사는 자원봉사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사회봉사단 활동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그 동안 에쓰-오일은 이웃,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나눔 경영을 더욱 확대하여 이웃과 협력하고 함께 번영하는 상생의 경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경영을 추구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